

## 등록금 인상을 8%로 하향 발표

### 학교, “민주적 절차 따라 결정할 것” ... 학생, “명확한 인상요인 요구”



학교측과 학내 구성원 대표가 모여 학교현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학교측이 지난 3일 등록금 인상을 8%로 하향조정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등록금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또한 교직원 인건비는 7%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학교측은 총장실에서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경주

캠퍼스 본관건립 △장학금 확대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책정에 참여시키고 인터넷·지면 등에 예산안을 상시공개 하는 등 “투명한 행정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학교측의 발표에 대해 학생회와 직원노조는 인상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명확한 인상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유영빈(경영4) 총학생회장은 “인상률은 감소했지만 논의 없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학생들과 협의한 이후 등록금 재책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원노조는 “본교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7%인상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혀 학교측과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교수회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인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해부터 큰 폭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김진선(회계학) 경영전략실장은 장기적인 학교수입 증가를 위해 △재단소유 토지 중 일부 활용 △사회교육원·특수대학원 프로그램 활용 △재정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운영 모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면담 이후 공개된 예산안에 대해 총학생회는 “예년에 비해 자세하지만 과도한 예산이 책정된 건축비의 용도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세부항목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측은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각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kaur121@dongguk.edu

### 본교 학술교류 현황 분석

## ‘유명무실’ 한 학생교류

### 외국인 학생 참여 저조 ...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해야

해외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은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양 대학의 증진을 꾀할 수 있어 많은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본교의 학술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 ① 학생교류
- ② 연구·학술회의 교류

현재 본교는 14개국 55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매년 평균 4개 대학과 협정을 맺는 등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교환학생 파견 현황을 살펴보면 4개국 11개 대학 44명으로 사실상 학술교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학생들의 신청이 가장 많은 영미권 대학의 경우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 19명이 파견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학생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외국 학생들을 위한 숙식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마련돼있지 않아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교류실의 한 관계자는

“기숙사가 없는 것이 외국 학생들이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교환학생이 상호 ‘교환’으로 이뤄지는 만큼 외국 학생들의 소극적인 참여는 결국 본교생의 유학기회 감소와도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본교에 유학 온 외국 학생은 일본과 대만학생 10명에 불과했다.

또한 협정을 맺었지만 학교간의 수준이 맞지 않아 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인형(화학) 연구처장은 “학술교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수준이 비슷한 대학과 하기 위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교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국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교학과와 같이 본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문을 개설해 학교의 홍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연구교육원과 각 교수가 1~2개 정도의 원어수업을 개설해 외국학생들이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려대 경영학과가

자매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할 경우 두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복수학위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또한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자매대학과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어학 뿐 아니라 전공과목으로 확대하고 인정학점을 늘려 단기 연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3학점이 인정되고 어학코스만 구성돼 있어 “연수비에 비해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신청이 저조한 편이다. 이와 여대의 경우 ‘Summer Session’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일반선택 △교양학점 인정이 가능하며 계절학기 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해외유학과 어학연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외국생활 경험과 학점 취득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본교는 앞으로 자매대학의 수를 늘리기보다 체결된 자매대학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55@dongguk.edu

## 2004학년도 입시전형안 발표

### 수시모집인원 확대·정시모집 ‘다’ 군 폐지

본교 2004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전형안이 발표됐다.

수시모집은 모집인원을 전체 정원의 28%에서 36%로 확대하고 담입추천전형을 일반우수자전형으로 명칭을 변경, 재수생의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2005학년도 입시에 7차 교육과정 도입과 재수생들의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시모집에서는 다군을 폐지하고 수능반영 영역을 5개 영역에서 △인문·예체능계=언어 수리 사탐 외국어 △자연계=언어 수리 과탐 외국어 4개 영역으로 축소했다.

이번 1학기 수시모집에서는 학생간부 경력과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LST(Leadership·Special Talent) 전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전형방법과 모집시기가 일부 변경돼 군인·경찰·소방·유공자 자녀 전형과 승려특별전형이 정시모집에서 수시 2학기, 불교계 추천전형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수시 2학기 모집으로 변경하고 지원단위를 불교대에서 법과·예술·사범대를 제외한 전 단과대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연극·영화영상전공 학생을 선발한다.

2개 모집단위로 축소된 정시모집에서 가군은 수능 100%로 선발하고 나군은 수능을 비롯한 논술과 학생부를 종합 평가해 선발한다.

한편, 본교는 오는 11월 또는 12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학 상담 콘서트를 열어 학교홍보와 입학전형의 주요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며, 오는 8월 입시홍보를 위해 각 지역 고등학교 입시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전국순회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오는 6월 3일부터 시작된다.



한총련 수배자와 그 가족의 만남, '새봄, 첫 만남' 행사가 지난 4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진행됐다. 민가협과 불교인권위원회 등 4개 종교 인권단체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눈앞에 집을 두고도 오랜 시간 생이별을 해왔던 이들의 애절한 만남의 자리가 됐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 축구부, 춘계대학연맹전 출전

### 오는 15일 고려대와 첫 경기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2003 협맹코리아배 전국춘계 대학축구연맹전'에 출전한다.

본교는 △고려대 △조선대 △한민대와 함께 13조에 편성됐으며 오는 15일 오후 1시 보조운동장에서 고려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이번 대회 예선은 조별리그로 결선은 각 조의 상위 2팀과 와일드카드 4팀이 출전해 32강토너먼트로

진행되며, 광주 월드컵 경기장과 보조운동장 등에서 열린다.

한편,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한 야구부(감독=한대화)는 지난 5일 원광대의 경기에서 4:3으로 승리해 3승2패를 기록했으며 농구부(감독=최성오)는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 출전해 지난 5일 중앙대의 패자부활 2차전에서 93:73으로 패해 탈락했다.

## 여대생 공직 설명회 개최

### 공무원시험 준비요령 등

여대생을 위한 공직 설명회가 오늘(7일) 오후 2시 다화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이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여성들의 공직사회 진출 전망 △공무원시험 준비요령 △후생복지 및 휴가제 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가전공 신청원 접수

### 신입생 중 상위 10%대상

2003학년도 입학생 중 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상위 10%를 대상으로 하는 가전공 신청원 접수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각 단과대 교학과에서 받는다.

신청은 모집단위 개설전공 중 2지망까지 지원해야 하며 각 학과 기준정원의 30%까지 배정 가능하다.

전공결정 결과는 오는 25일 단과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리소

### 류큐왕국

일본 남단 1,000km - 오키나와 섬의 토박이를 만나면 금방 '이 사람은 한국사람이겠지'라는 착각에 빠진다. 정말 우리와 구분하기 힘들다.

음식도 일본 본토와는 매우 달라서 우리 입에 딱 맞는 해초, 물고기 가가지 반찬으로 오르는데 탄성이 절로 난다. 전통무용은 마치 우리의 승무처럼 조금씩 다소곳이 움직일 뿐이고, 민속노래는 가락이나 애잔한 느낌이 영락없는 아리랑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오키나와는 본래 류큐(琉球)왕국이라는 독립국가였다. 이곳의 국보급 범종은 요모조모 들여다보지 않아도 대뜸 우리나라의 그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유산인 대장경도 조선대에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고려대장경의 일부이다.

류큐왕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되던 중 미군이 상륙, 지상전이 펼쳐진 것이 1945년의 일이다. 3개월 동안 10여만 명의 주민과 또 10여만 명의 군인이 죽은 이 처

참한 전쟁 이후 왕국은 미국령으로 지배되다가 1972년 다시 일본에 귀속되었다. 한 반도가 남북으로 갈라듯 강국들의 일방적 처사에 의해서 독립을 잃었다.

오늘날 오키나와 섬의 영토 25%가 미군 기지라는 사실, 그들이 뿌리는 돈이 지역 경제의 큰 틀을 이룬다는 현실상황, “양키고 홈”을 외치는 젊은이와 경제에 집착하는 기성세대의 갈등도 우리와 닮았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에 연관된 사정을 잘 들여다보면 미군이 오늘날 까지 반

백년을 넘도록 류큐왕국에서 철수하지 아니하는 이유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류큐대학 캠퍼스에 걸린 이라크의 반전을 외치는 붉은 빛 현수막들의 문구는 서울의 모교에서 쉬이 보는 그것과 같았다.

이곳 어린이들은 “엄마”를 “암마”라고 부른다. 마치 다도해쯤 우리 땅에 와있는 듯 했다.

김형균  
도서출판 동쪽나라 대표

발전기금 060-700-0119

## 속 시원~히 이야기합시다!

오는 4월 15일은 동대신문의 제54회 창간기념일입니다. 이에 학내구성원들과 함께 동대신문을 평가하고 대학언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동대신문을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을 '동대신문 평가 공개 토론회'로 초대합니다.

△일시 : 오는 10일(목) 6시  
△장소 : 학림관 소강당

학생·교수·직원, 모든 학내 주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 지면안내

5면 저자와의 만남②

‘대한민국의 저자’ 한홍구 교수와 독자 이한형(사)군의 만남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 △역사연구 관점의 상대성 △역사왜곡 문제 등에 대한 그들의 대화를 들어본다.

4면 반전수업 지상중계

지난 4일 진행된 박순성 교수의 반전평화수업을 살펴본다.

8면 잠든 박물관, 깨어나라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과 변화하는 박물관의 모습을 이야기해 본다.

학생회 보궐선거 평가

# 학생참여 저조·선거진행 미숙 새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참여 확대해야

학생회 보궐선거가 지난 달 28일 막을 내렸다. 이번 보궐선거는 경선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50%가 겨우 넘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약 50여명도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 합동유세는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선거가 무산된 4개 단과대 중 1개 단과대에서만 후보자가 등록해 학생회 위기를 심각케 했다.

이러한 투표를 저조현상을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투표소 내 노트북을 설치해 홈페이지를 통한 투표인 확인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각 단과대와의 의견 전달 부족과 장비준비 소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대가 단과대 내 투표소 설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도서관, 학생식당 등에 '전체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단 한 차례 진행된 후보자 합동유세 장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해 30분 이상 지연되고, 예술대의 선거함을 밀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선거 진행에 대한 선관위원의 기본적인 이해 부족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선관위원의 미숙한 진행은 선관위가 늦게

구성돼 사전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개 단과대를 제외한 대의원장은 선거가 시작되기 10일에서 2주일전 확정된 시행세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의를 받았을 뿐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기간동안 일부 선관위원들이 투표·개표에 지각하거나 개표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자는 등 선거분위기를 흐렸다. 심지어 개표 중 특정 선분을 따라 개표장에서 이탈하기도 했으나, 선관위에 대한 징계사항을 시행세칙에 명시해놓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시행세칙의 모호함으로 선거운동본부와 중선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각각 다른 확인용·보관용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있었던 점과 오차율의 개념에 대한 논란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사전에 후보자와 선관위가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선위와 후보자측은 상시적으로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 원만한 선거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3면(해설보도) >조슬기 기자



의미있는 동전 ... 총학생회가 지난 4일 근거없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두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동전으로 납부했다. 이에 앞서 불상 앞에서는 지난 3일 등록금 인상을 8%에 대해 학교측과 논의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삶의 근원 통찰할 때 깨달음 얻을 수 있어” 틱낫한 스님 ‘일상에서의 마음챙김’ 주제로 특별강연 진행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으로 세계 반전평화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화'의 저자이자 달라이라마와 함께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틱낫한 스님이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본교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일상에서의 마음 챙김'이란 주제로 중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외부인을 포함해 5000여명이 참석했으며, 만해광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상영돼 중강당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강연은 △호흡·식사 명상

△좌선 △마음가짐 수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틱낫한 스님은 고통의 원인은 잘못된 이해와 편견, 상상에서 비롯된다고 "근원의 삶을 통찰했을 때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근본적으로 알 수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곧 사라질 것이며, "무아와 연기의 토대 위에서 지혜·통찰력을 형성할 때 비로소 깨우칠 수 있고, 무상과 무아를 조화시킨다면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미소를 지으라며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강연에 참석한 이법산(선학)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깨어있음을 느껴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틱낫한 스님은 방문 둘째 날과 셋째날 강연에 앞서 만해광장에서부터 팔정도주변을 거닐며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 졸준위, 앨범업체 선정 LG기획 스튜디오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현재영·토목4)가 2003학년도 졸업앨범 업체로 LG기획 스튜디오를, 졸업CD업체로 테마플러스를 선정했다.

이번 업체선정에서 LG기획은 공개 토대양·세븐 캄라 스튜디오와 경합을 벌였으나 전시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총 7표 중 4표를 차지했다. 이번 업체선정은 지난 31일 공개 설명회가 끝난 후 상임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 오는 18일 도서대출 중단

중앙도서관이 4.19등반대회가 열리는 관계로 오는 18일 도서대출을 중단한다. 이날 반납과 열람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 임시학생대표자회의 열려 구 중도 리모델링 원칙·총학 10대 과제 등 논의

임시학생대표자회의가 지난달 31일 팔정도 불상 앞에서 열렸다.

이날 35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는 학원자주화투쟁 경과 보고를 통해 "지난 1월부터 남부연기 운동과 등록금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동투쟁분부를 건설하는 등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벌였지만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해 활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등록금 현물납부와 남부거부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 트리모델링 등록금 사용 불가 △공간문제 해결, 법대와의 약

속 이행 △학생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의 3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소외비용과 공간 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회장=유영민·경영4)는 총학생회 10대 과제를 △과학생활을 통한 수집 △실문조사 △간담회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수렴 △스티커 설문 등을 통해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각 단과대의 현황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 인준은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정기 정기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하기로 결정했다.

### 모의토익 신청 오는 11일까지 신청순 300명 접수

언어연구교육원(원장=봉일원·독일학)이 모의토익 신청을 오늘(7일)부터 11일까지 받는다.

이번 모의토익은 신청순 3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2일 오전 10시 동극관 L401·L501에서 진행된다. 응시료는 4000원이며 불합격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무료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총 915명이 응시한 2003학년도 신입생 모의토익 결과 지난해 501.3점보다 약 25점 하락한 476.81점으로 나타났다.

성적표는 각 단과대 교학과에서 배부 중이다.



다 함께 출발 ... 4월에 접어들면서 각 단과대가 해오름식을 진행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사범대학생회(회장=이승호·국교4)는 지난 4일 해오름식에서 연극제와 대동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부 tmax@dongguk.edu

## 새내기 농구대회 개최

### 과·반 학생회별로 한 팀씩 신청가능

총학생회(회장=유영민·경영4)가 해오름주간을 맞아 내일(8일)부터 16일까지 새내기 농구대회를 진행한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는 과·반 학생회별로 한 팀씩 최소 5명에서 최고 10명까지 출전 가능하며 만해광장에서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늘(7일) 오후 3시까지 △dongguk34.w.to △jayuin76@dgu.edu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학과·반 새내기 이메일 주소록과 선수 명단, 대표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대진표 추첨은 오늘 오후 4시 30분 학림관 소강당에서 진행되며 이날 참가비 1만 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 2003학년도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신청서 접수

2003학년도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자격 : 2003학년도 1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
2. 자격종류 : 평생교육사 2급
3. 접수기간 : 2003. 4. 8(화) ~ 4. 11(금)
4. 접수처 : 사범대학 교학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여론광장 → 단과대학계시판 → 사범대학 계시판에 '평생교육사과정 이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 취미와 취업을 위한 단기강좌

공강시간을 멋있이 보내는 당신, 여기로 오라~

강좌명	강사	내용	시간	비고
댄스&댄스	손재현 체육교육과 교수	재즈·나이트댄스	화요일 2:30 ~ 4:30	-신청순 40명 -체육관 무용실 -면담할 적용
이미지메이킹	박소정 (사)밝은미소운동본부 강사	1. 표정연출법 2. 인사예절법 3. 커뮤니케이션스킬 4. 아름다운 자세연출법	금요일 12:30 ~ 2:30	-첫시간 거울준비 -물체·빛채 정장착용
발마사지&경락	안옥순 한국발반사학회 상임이사	1. 날씬한 종아리 마사지 2. 변비, 비만, 두통, 요통해소 3. A+를 위한 집중력?기억력 4. 통배법(어깨&Back풀어주기)	금요일 3:00 ~ 5:00	-재료비 3만원추가

2. 접수 : 4월 21일 ~ 25일, 여학생실(계산관 1층, ☎ 2260-3056)
3. 대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 신청순 마감, 정원 이하는 폐강
4. 수강료 : 10,000원(100% 출석시 환불)



◆ 취지 : 학내에서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정서함양과 교양습득에 도움이 되는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여학생실

## 제5회 연등 & 축원문(사연) 대공모

아름다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연등을 만들고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에게 띄우고 싶은 축원문(사연)을 써서 마음을 전하는 기회

내용	연등부문	축원문부문
으뜸상(1명)	의미를 담은 아름답고 독창적인 등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원문(A4 1~2장)
버금상(1명)	상금 30만원과 상장	상금 20만원과 상장
아차상(2명)	상금 20만원과 상장	상금 10만원과 상장
	상금 5만원과 상장	상금 5만원과 상장

1. 공모기간 : 2003년 4월 28일(월) ~ 5월 1일(목), 여학생실(계산관 1층)
2. 발표 및 시상 : 2003년 5월 6일(화) 12:30, 계산관 앞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학생실(2260-3058)로 문의바랍니다.

정각원·여학생실



동약로

베일 속 납부



“학생회비를 납부하러는데 학생회비가 뭐지?”  
 “모르겠어, 근데 선배들이 계속 납부하러네.”  
 매년 새학기가 되면 각 과 학생회는 신입생들에게 학생회비 납부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쉽사리 학생회비를 내놓는 신입생은 많지 않다. 신입생들은 학생회비의 용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며 간혹 선배에게 용도에 대해 질문해도 “4년간 너희가 학교생활 하는 것에 쓰인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대답에 5만원 이상의 거금을 학생회비로 내놓을 학생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이어리를 드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학생회비 사용계획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신입생들을 이해시키려하기보다는 이같이 ‘억지로’ 겁으려는 학생회들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입학금을 통해 다이어리비용을 이미 지불한 학생들에게 다이어리를 빌미로 삼아 학생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학생회가 회비를 충분한 설명 없이 걷는 것은 이미 관례처럼 굳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관례는 학생회비의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에서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학과들이 학생회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학과 총회를 통해 공개하는 자리를 가지지만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학과 역시 많다. 만약 사용내역만 정확히 밝혀졌다면 지금처럼 “무조건 내라”는 식으로 납부를 요구하는 악순환은 계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총학생회는 학교측에 예산안 공개 등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과 학생회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학생회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학생회는 자신을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반전수업 들여다보기

# 반전을 배운다 인간을 배운다



지난 2일 동국관 어느 강의실. 평소대로라면 북한학 전공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시간에 전혀 낮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전쟁과 평화의 정치경제학’ 수업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성명을 통해 반전수업을 약속했던 박순성(북한학) 교수가 자신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수업시간에 반전토론 수업을 진행한 것이다.

박 교수의 반전수업 제안에 수강생들은 큰 호응을 보였고 일부는 발제까지 도맡았다. 이날 출석율은 90%. 6, 7명의 청강생까지 수업에 함께 했다. 학내에서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소문’으로 찾아온 것이다.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수업은 △이라크 전쟁의 본질 △전쟁·파병 찬성론 △전쟁·파병 반대론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반전평화 수업을 들여다본다.

**교수** = 이라크 전쟁은 석유중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21세기 문명의 미래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어떤 주장이라도 아주 논리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북핵위기를 올바르게 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이라크 전쟁의 본질 “결국 석유 패권이다”



△발제1=홍중대(경영3)

미국은 세계 석유의 1/4을 소비하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 2위의 매장량에 채굴 비용이 저렴한 이라크의 석유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카스피해를 장악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과 후세인의 관계는 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라크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후세인 정권을 지원해온 미국이 이제는 후세인 ‘응징’운운하는 이유는 그가 미국의 석유 패권장악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전은 어떤 미국 대통령의 임기여라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어느 미국교수의 말은 미국이 처한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 전쟁·파병 찬성론 “경제적 국익 생각하자”



△발제2=김동민(북한3)

이라크 전쟁 = 이라크가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위협적이다. 수많은 시아파와 쿠르드족 난민을 학살해온 독재정권 대신 새로운 민주정권을 세우야 할 때다. 또한 이라크는 687호 결의안을

10여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 때문에 미국은 테러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1441호 결의안을 채택했고, 무력사용을 감행한 것이다.

**국군 파병안** = 우리는 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이다. 미국 미사일의 영공통과안을 부결시킨 터기는 이미 미국의 원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또한 파병을 통해 북한을 이라크처럼 해결할 수 없다는 방어막을 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한미관계 복원을 위해 △우리나라를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구해준 혈맹이기 때문에 △전후복구사업에서 프리미엄을 따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전후복구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파병찬성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 전쟁·파병 반대론 “미국의 국익일 뿐”



△발제3=차경운(정의2)

이라크 전쟁 =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 독재정권 타도를 전쟁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설득력이 없다. 걸프전 이후 미국은 지금까지 이라크에 무차별 공습공격을 가해왔고, UN의 경제봉쇄

로 사망한 이라크인은 150만명이 넘는다. 이는 후세인의 쿠르드족 난민학살 규모를 뛰어넘는 것이다. 게다가 전쟁은 그들이 “해방하겠다”는 이라크 민중과 후세인이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전후 살상무기가 사라질 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미국 위협세력이 양산돼 수탈과 저항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군 파병안** = 한국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엄청난 규모의 국군을 파병했지만 여전히 미국에게 우리의 목소리는 작다. 남북관계가 미국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결된 적이 있는가. 오히려 한반도 안보를 방자한 미국의 개입 논리가 관철되는 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미국의 국익기준으로 판단하면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후세인 정권을 보라.

다른 국가와 민족을 적으로 돌려놓고 이후 한반도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국제사회의 동조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교수** =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인 생각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한번쯤 미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 토론시간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학생들의 의견과 질문을 살펴본다  
 △국익은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인가, 아니면 건설·석유·군수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익인가.  
 △파병안 논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 파병여부를 결정한 뒤 그 규모와 성격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먼저 파병을 단정짓고 비전투병만 파병하자는 식으로 설득하려하는 것은 아닌지.  
 △전쟁에 반대했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지금, 세계를 전쟁찬성국가와 반대국가로 나누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력사용’만을 위협으로 보아온 것 같다. 지난 10여년동안 미국이 이라크에 백신 수입을 차단해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갔다. 미국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라크전은 미국 어떤 대통령의 임기여라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도 이번 파병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앞의 발언에 대해) 단순히 ‘부시는 전쟁광’이라는 식의 논리로 잘 못됐다고 보지만, 어떤 대통령이라도 파병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논리는 파병결정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 대학생 행동의 날

# 대학생, 평화위해 강의실 밖으로

“No war! Stop the war!”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한국군 파병 철회·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 300만 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가 지난 4일 종묘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과 전국학생회의(이하 전학협), 전국학생연대회의 등 각 학생운동단체가 ‘전쟁·파병 반대’에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으는 접에서 눈에 띄었다.

행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그동안 희생된 많은 이라크 인을 위한 묵상과 함께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각 단체의 반전발언 순서에서 전학협 최지선(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임시 의장은 전쟁이 끝난 후에는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 하층 국민은 굶주린다는 브레이트의 시 구절을 인용하며 “전쟁 반대의 목소리는 국적과 민족, 승전국, 패전국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동맹휴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 최중훈(생물교육4) 반전위원회 회원은 “전쟁·파병 반대의 의견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뿐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전국교수노조 황상익(서울대 의학)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국군의 파병 결정은 명분과 현실의 대립이 아닌 정의와 불의, 평화와 침략 사이의 결정이었다”며 “학생들과 교수들의 단결로 이라크 민중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중고차 부품판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라크인 마지드 A. 한무시(28) 씨는 “가족들이 생사를 모른 채 2주가 흘렀다”며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죽이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소리쳤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서총련 박재익(고려대 총학생회장) 의장은 반전결의문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반전 행동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오는 11일에는 다시 종묘 공원에 모여 반전의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학교의 동맹 휴업을 통해 오는 12일 ‘국제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에 대규모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현재 이라크 전쟁·반전평화와 관련 현재 서울대, 경희대 철학과 등이 학생 투표 후 동맹휴업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성공회대 등 많은 대학이 동맹휴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가 지난 4일 종묘에서 진행됐다.

저자와 독자의 이유있는 '만남'



'대한민국' 저자 한홍구 교수

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문적 혹은 교양적 지식을 전해 준 저자. 그리고 그 책을 열심히 읽어 나눈 독자를 얻게 된 독자. 이들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분명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학술면에서는 3회에 걸쳐 저자와 학생 독자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

연기영 교수의 뒤집어 본 법이야기 (3)



이한형 (사3)



매력적인 화두, 대한민국史를 이야기하다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사이버 NGO 자료관장) 교수는 '할 말은 하는' 학자다. 더욱이 '역사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뒤엎고, 역사에 대한 기존 학설과 통념에 과감히 도전하는 학자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글쓰기도 그렇다. '한겨레 21'에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로 연재되었던 글들을 보완해 묶은 책,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살펴 보면서 역사를 새롭게 보는 안목을 길러준다.

분단과 통일, 주한미군 문제를 비롯해 친일파 논쟁, 병역비리 논쟁, 외국인 노동자 차별 문제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민감한 쟁점의 해결책을 역사적 뿌리에서 찾아보는 관점도 유익하다.

한겨레21에 연재되던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를 보고 필자의 색다른 관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는 이한형 군. 지난 4일, 그와 함께 한홍구 교수가 있는 국제민주연대 사무실을 찾았다.

역사학자와 역사학도의 만남 그리고 '대한민국'과 역사적 관점 등에 대해 논하는 그들의 대화를 엿본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찾아서

이한형(이하 이) = 우선 만나볼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관련 서적을 많이 참고하는데 교수님의 '대한민국'은 관점이 다른 반대측의 의견도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접한 어느 서적과는 차별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친일과 반공이 보수를 죽였다

한 = 역사는 진보와 보수가 긴장·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화와 비판을 통해 반성·수정하는 속에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전통적인 보수주의는 양심과 양심이 있는 보수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구선생도 사상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었지만 민족적 양심이 있기에 그를 건전한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일제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전통적 보수의 서식자가 파괴돼 보수주의자는 기반을 잃게 됐습니다. 반면 친일세력은 해방 후에도 반공의 깃발을 들고 친일정신을 주장하는 민족세력들을 제거한 후 수구세력으로 자리잡았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친일파정신을 주장하던 양심 있고 합리적인 우익들은 수구파에 의해 포섭되거나 제거됨으로써 수구파의 헤게모니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80, 90년대를 지나면서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수구세력에 맞서는 구도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구세력의 헤게모니를 극복한 이후 앞으로는 역사발전을 위해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각자 이념대로 활동하는 속에서 서로 견제·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수파는 수구파 헤게모니 사회에서 벌어진 과거정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구세력과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이 =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도 이 책 머리말에서 "객관적 관점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역사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기록된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보면 교수님과 다른 관점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상대방 의견도 일리가 있다는 여운을 남기신 것 같은데요.

편견과 왜곡을 뛰어 넘어

한 = 객관적인 역사를 쓰는 것은 역사가에게 고귀한 황금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쓰인 것인데 어떻게 중립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의 논리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관점의 입장을 충실하게 소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는 지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다음 책에는 다른 관점의 의견도 참고 문헌으로 수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 몇 년전 일본의 역사왜곡문제가 뜨거운 이슈였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나라 교과서의 근현대사 왜곡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요.

한 = 일본교과서가 극우파에 의해 왜곡된 것에 분노하지만 일본교과서 전체를 놓고 볼 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회에는 국수·애국적 정서도 물론 있지만 사실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곡된 교과서의 검증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전 세계에서 단 한 개 학교만 채택한 것이 일본사회가 나름대로 건강하다는 증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안타깝게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현대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사교과서의 현대사 부분은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수록된 내용도 왜곡된 것이 많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현대사 과목을 분리시키기는 했지만 현대사 부분의 사료가 워낙 방대하고 고·중대사에 비해 연

구가 미진한 편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사교과서를 국정이 아닌 검인증을 통해 편찬하게 했지만 교과서 편찬 경험이 많은 역사저술위원이 드물어 이 역시 우려되고요.

이 = 교수님께서 베트남 진실위원회 집행위원으로서 베트남 평화역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파병과 이라크전 국군파병 결정이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익을 위해'라는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 베트남전이 일어났을 당시 박정희 정권도 처음에는 의무병과 공병만을 파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투병으로 확대해 한미동맹이라는 명목으로 32만명이라는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했죠. 당시에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이었지만 SOFA 개정도 못하는 등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이라크국군파병을 통해 대미발

언권을 강화한다는 등의 국익론은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했던 교수님의 다음 책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한 = '대한민국' 2권을 5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한 국현대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베트남 평화역사기념관 건립 추진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반전평화교육 사업도 틈틈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리=최성민 기자 kwertewq@dongguk.edu



수습기자 모집광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 ... 헛되이 보내시겠습니까?



알차고 보람된 대학생생활, 동대신문사에서 시작하십시오.

- ▲모집인원 : 0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장 (지원서는 본사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4월 16일(수) 오후 6시까지
-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및 간단한 시험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동대신문사

학술단신

이라크 침공 관련 보도 비판 토론회

'이라크 침공 관련보도 제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늘(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개최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인제대 김창룡(언론광고학) 교수가 방송보도에 대해서, 한서대 이용성(신문방송학) 교수가 신문보도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김재남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본교 박순성(북한학) 교수, 박수택 SBS 보도국 기자, 구정은 문화일보 국제부 기자 등 5명이다.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회

'WTO 교육개방, 교육시장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회가 오늘(7일) 오후 6시 조선대 214강당에서 열린다.

조선대 철학과 등이 주최하는 이번 강연회에는 김수정 WTO 공부부 집행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교육개방의 약사와 이에 대한 반은 △교육개방의 민족적 함의 △교육개방 이후 우리의 할 일과 교육공공성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소나기

미대통령 조지 부시에게 말한다



△당신은 신이다.  
 인간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가 독재국가라면.  
 미국의 통치자가 해방을 명분으로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  
 △우리의 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야 깨달았다.  
 △미국 시민들은 이라크 전쟁에 이기더라도  
 늘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  
 예부터 지도자는  
 하늘과 백성을 두려워하여야 한다고 했거늘.  
 △당신을 폭군으로 임명합니다~!  
 △소용이 없다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가 없이  
 세상에 한가지 이야기만 존재한다면  
 당신은 더욱더 자신의 이익에만 맞추어 행동할  
 것이다.  
 당신이 하는 행동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대세는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재발 북한은 건들지 말아 주라~  
 △미국도 하루 속히 네덜란드처럼  
 모든 질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부시도 전쟁 말렸는데...  
 '정신병자' 들을 치료할 수 있다.  
 △부시를 지지한다.  
 △명청한 것이지, 명청한 척 하는 것인지.  
 △만약 당신이 아니라 고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러치 부시도 전쟁 말렸는데...  
 △그는 과연 단순한 전쟁광인가,  
 전쟁으로 세계를 움켜질 전략가인가.  
 △부시야, 북한은 안된다.  
 △이제는 프랑스 대통령 자크시라크도  
 들어왔으니 마음에 걸릴게 없겠구나.  
 △당신 동생이 차기대권 노란디지?  
 정말 웃기는 집안이야.  
 △요즘은 과자먹다가 안채하니?  
 △'조지고 부시고' 가 너의 별명인건 아닌지.

답에 기대어 고개 숙인 어린 소녀의 뒷모습에서 한없이 묻어 나오는 절망감에 대해 나는 무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소녀의 팔꿈치에 난 상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난 전쟁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고, 정수리에 꽂은 고운 머리핀의 붉은 빛깔은 이제 시작된 전혀 새롭지 않은 전쟁의 잔혹함을 미리 보여주는 듯하다(환경연합 반전포스터). 모든 언어와 논리는 힘을 잃고, 부끄러움만이 슬픔을 달랠 수 있을 뿐이다.

문명의 발전은 인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행동방식이나 존재양식을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지만, 인류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쟁무기는 인류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르렀고, 석유산업문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석유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태에 도달했다. 하지만 전쟁은 인간의 무지를 비롯듯이 시작되고, 전쟁의 불가능성(에코)을 논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일이 되어 버렸다.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 테러 예방, 독재자 교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이 대량살상무기의 대규모 사용을 가져오고, 테러를 양산하고, 세계적 차원의 독재를 보여준다.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수단이 사용되고 결과가 목적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면, 분명 전쟁의 목적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내세운 명분과는 다를 것이다. 비



논단 박순성 북한학과 교수

전쟁, 파병 그리고 대학

인간적 수단을 사용하고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 전쟁이기에 그리고 전쟁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기에, 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전쟁에서 국제기구와 국제법은 거추장스러운 장식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파병은 또다른 파괴

국익을 고려하여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은 전쟁을 지지하고 전쟁에 필요한 군대를 파병하는

일은 얼마나 파괴적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살상할 때 파괴되지 않는 인간성이란 없다. 인간성이 파괴된 다음에 남는 이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남을 파괴하는 행동이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국민의 보편적 양심과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국익이란 존재하는가. 그러한 국익은 누구의 국익인가.

우리의 국익과 평화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다른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파괴하는 그들의 전

쟁에 찬성하고 나면, 다시 그들이 자신들의 국익과 평화를 위해 우리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위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국익론의 밑에 깔린, 소위 '악자의 현실주의'는 알파한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이며, 강자가 강요하는 부당한 현실에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합정이다. 오늘의 국익이 내일의 위협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진정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대학이여, 살아있다면

대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소크라테스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젊음이 존재하는 모든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질문도 던지지 않고 기존 질서에 순응하려고만 한다면 대학은, 젊음은 어디에서 존재이유를 찾을 것인가. 오늘 나의 양심이 파괴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일 나의 양심이 파괴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젊은 영혼들이 사라져가는 어린 생명의 공허한 눈빛과 절망에 찬 어머니의 절규 앞에서, 자신들의 미래만을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특별기고 - 마음 다스리는 법 전해준 틱낫한 스님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랑스로 망명, 플럼빌리를 세워 자신의 사상을 굳건히 하고, 세계를 순회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첫 번째 날의 호흡 명상="분노의 마음이 되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때는 저항하지 말고 분노의 마음, 분노가 일어난 그 순간을 온전한 침묵으로써 화의 근원과 근원을 알아 그 순간을 연민으로써 받아들여 마지막으로 미소로써 내 마음을 표출한다." 한 호흡의 순간순간(들숨 날숨) 마음을 놓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현재를 알 수 있고, 곧 이것이 행복(정념수행)이며, 한 곳에 진정 몰두할(호흡) 때 그때가 바로 깨어있는 순간이며, 부처님을 느낄 수 있다. 들숨과 날숨이 중요한 선정의 마음이 되어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는 가르침이었다.

▲두 번째 날의 걷기 명상=불상 주변의 교정에서 30여분 걷기 명상이 끝나고 중앙당에서 정념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일상생활을 차분한 마음에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그대로 느끼라"는 당부를 하셨다. 부처님께서 하시 하신 말씀이지만, "상대방이 날 제대로 못보고 있어,

내가 보는 상대방은 저런 거야." 항시 내 시각에서의 자세로 상대방을 저울질하고 선을 긋고 단정해서 다툼과 사랑이 생긴다. 이때 호흡 명상과 걷기 명상 수행에서 얻어진 에너지로 다툼이 아니라 침묵으로 보게 된다.

▲세 번째 날의 좌선과 마음챙김 수행=원인을 일으킨 자도 역시 나라는 것을 알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모순보다 내 마음, 내 모습에 대한 모순을 먼저 발견해야 정념(正念)수행을 할 수 있다. 화의 근원과 근원을 보고 연민으로 화가 나는 그 순간을 보듬어 준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이 공(空)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 몸과 마음이 흩어지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i have arrived' 틱낫한 스님의 3일 강연 내내 뒷 배경으로 큰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에 쓰여진 문구다. 그렇다. 내 마음에 이미 스님이 도착하여 계신 것을, 내게 온 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릴 뻔했다.

이 법산 선학과 교수

식당 위생상태 시정하길

개강하고 얼마 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동국관 식당을 찾았다.

시간은 12시. 점심시간이라 동국관 식당은 학생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그레도 줄 맨 뒤에 서서 차를 기다리고 식권을 산 후 음식을 받아 빈자리로 갔다. 밥을 먹다 보니 국에 이상한 것이 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도 동국관 식당을 이용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때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냥 버리곤 했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생기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됐다.

보통 주중이나 수업이 많을 때에는 학생들은 학생식당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매년 학교 밖에 나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사먹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상태가 아닐까. 세정해서 사용하는 식판이나 숟가락, 젓가락에 이물질이 묻어있고, 밥에서는 약간 수돗물 냄새 같은게 나서 밥을 먹지 않는 학생도 있는 이 시점에서, 계속 이런 상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장염이나 식중독까지 걸릴까봐 우려된다.

학생식당이 '장사'를 위한 것뿐만이 아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식당 위생상태의 시정과 음식 맛의 개선을 통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마음놓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우혜진(사과대 신빙3)

학내 청소 비정규직과 대학생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는가? 우리가 학교 화장실이나 일상 공간을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학교의 시설은 유지되고 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 아주머니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은 이는 선배를 따라 학내 비정규직을 조사하려 간 일이 있었다. 처음에 나는 학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착취받는 노동자를 생각했는데 멀리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을 놀아야. 곧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나는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사항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고된 노동량, 적은 월급, 인간적인 처우부재등 대부분 예상한 것들이었고 나는 그 원인을 곧 고용주의 부당한 노동

착취 문제로 단정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주머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불만사항의 원인은 바로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총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 분들이 당사자로서 느끼는 것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아차!' 싶었고 무엇보다 상당히 부끄러웠다.

교육투쟁을 하면서 학생들도 사회구조에 부당하게 착취받는 사람들과도 생각했던 학기 초의 기억이 났다. 우리가 반대로 착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부끄러웠다.

학생들도 이제 학교의 주인이라고 부르짖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차경문(사과대 정외2)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신임처장 인터뷰 유익 교육개방 비중 늘려야

그동안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1362호 동대 신문에서는 파병안 부결에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김원웅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파병 반대 측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옆 기사에서는 동약 내에 반전 평화 위원회 활동이 결성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시각의 흐름(좌→우)에 따라 기사를 배치시켜 교내 참여 활동을 촉구하려는 뜻은 전달되었으나 학내

상황을 담은 기사의 크기가 너무 작게 편집되어 의식고취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신문사실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교육 시장 개방 문제는 민감한 이슈이다. 동대신문이 대학 신문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미흡한 측면이 남는다. 교육 시장 개방은 분명 한국 대학의 입장에서 중대한 위기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 시장은 특히, 지방대의 경우 외국 대학생을 유치해 외야할 정도의 인원 미달 사태를 비롯하여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 문제는 금전적 측면의 문제만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적 측면의 향상으로도 논의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끝으로 이번 총학생회 보궐 선거 결과 유영빈·이상현 조가 당선되었다고 한다. 이들을 인터뷰한 내용에 구체적인 사안을 보도함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신임 처장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학교 운영 계획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아무쪼록 처음의 각오가 잘 수행되길 바란다.

정진희(사과대 신빙2)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내 생일을 자축합니다. -서정홍  
 △4월 3일 나의 오빠 생일 축하해~!!  
 △4월 4일 승일! 왜 태어나서 사람 속 썩이냐? -CMR  
 △전지99준수♡국교02영진  
 △사랑해 감식야 -I·H  
 △정미야~♡ 아픈데 발표준비 한다고 수고했어.  
 △OPUS 신입단원 여러분 환영해요. 입단을 축하합니다. -서중웅

수고하셨습니다

△수경이형! 교생실습 잘 다녀오세요~ -44기  
 △장상 꽃매 매방 엘리 수고하셨습니다. -어리버리  
 △현정, 연경, 자영~ 교생실습 잘다녀오자 -H.S  
 △매미연~ 회 지낸다고 수고했어~!!^^  
 △먼규~ 어른 놀이하느라 육됐다^^\*

열심히 하시다

△건축야 축생축사 운영 열심히 해 -락  
 △필수야 이판 사판 열심히 해 -yr  
 △소형 형!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TIME 03 학번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춘곤증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자! -YH  
 △유미야 11시까지 열심히 하다가자 -S

그리고...

△고침시다. 동국관 1층 매점 쪽 화장실 소변기 2월부터 고장이 나서 누수됩니다. △중도 울 때 여자들 구두 너무 또각거리지 말았음 좋겠다  
 △프린터기 몇 대 더 설치합시다! 답답해 죽겠어요!  
 △김실에 책 놔두고 판 데 가지 않습니다. 속 터져  
 △도서관, 공대자판기 메뉴 바뀔시다. 해화관의 델몬트 오렌지 망고 너무 먹구 싫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4/7)	소고기당면탕 (15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너비아니백반 (1500)	소고기미역국 (1500) 오징어볶음 (1500) 산채비빔밥 (1500)	콩나물볶아해장국 (3200) 낙지제육볶음 (3200)
화(4/8)	꼬치어묵우동 (1500) 모듬볶음밥 (1500) 닭도리탕 (1500)	백반 (1500) 닭조림 (1500) 제육김치된밥 (1500)	만두전골 (3200) 두부김치 (3000)
수(4/9)	설렁탕 (1500) 해물덮밥 (1500) 탕수육백반 (1500)	콩나물국밥 (1500) 새우볶음밥 (1500) 감자탕 (1500)	수육쌈정식 (3500) 해물자장덮밥 (3200)
목(4/10)	순두부찌개백반 (1500) 소고기테리야스 (1500) 떡볶고기 (1500)	소고기무국백반 (1500) 어묵떡볶이 (1500) 리조육 (1500)	스파게티 (3200) 황태구이 (3500)
금(4/11)	사골우거지탕 (1500) 참치김치덮밥 (1500) 치킨샐러드 (1500)	사골곰탕 (1500) 고구마별미밥 (1500) 오무라이스 (1500)	날치알술밥 (3200) 탕수육백반 (3200)

문화인이 말하는 나의 하루

준비 '삐끗'한 도서정가제 벌써 '삐걱'

마일리지·묶어 팔기 등 편법 성행 ... 오프라인 서점 위기 여전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쫓긋하지요."



박병권 소리전문가·노래패 이리랑 13기

오늘도 지나치는 사람들 틈에서 한가롭게 이웃 자갯을 둘러보며 귀를 연다. 많은 소리들 중에서 좋은 음악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오늘도 내가 만들고 담아 내야 할 소리를 위해 작업실로 향해야 한다.

#오전작업

게임사운드든 한번을 들어 귀에 남고 백번을 들어도 실중 나면 안된다는 재미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며칠동안 들어온 요상스러운 소리들 중에 선택된 소리들이 오늘 도마에 올라왔다. 잘 다듬어내기 위해서는 개구리의 소리로 전화벨 소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작업! "오케이!" 가 될 때까지 고민은 이어져야 한다. 이 소리 어때? 라고 물으며 들려주었는데 옆에 있던 후배는 웃기만 한다. 재미없지는 않은가 보다. 웃으니 다행이다.

#오후작업

유아용음악교재? 처음 맡아본 일이다. 제작자의 달달이 있어도 급하게 만들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만들어야 할 소리로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게 되는 것. 한번 더 손이 가게 되고 듣고 또 듣고 손을 본다. 문득 내가 처음 들어본 악기소리는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기억하지 못하는 소리였지만 좋은 소리였다고 생각하고 싶다. 어머니의 심장소리 같은 그런 소리처럼.

#저녁작업1 - 녹음

후배가 새 노래를 들고 왔다. 피곤해 보이지만 새 노래를 녹음하기 전의 설렘이 엿보인다. 레코딩 시작. 어느 일이나 있기 마련인 아쉬움이 작업의 발목을 많이 잡는다. 하지만 가수도 나도 최선을 다한다. 땀흘리며 노래하는 가수의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버려지지 않도록 좋은 소리를 담아야 한다.

#저녁작업2 - 믹싱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음악도 각자의 소리들이 맡은 곳의 위치에서 적당한 소리를 내야만 좋은 음악이 된다. 잘 섞어 주어야만 그 노래만의 색깔과 맛과 느낌이 나온다. 작업이 끝나면 남은 아쉬움 달래며 술 한 잔 하고 싶다. 그래도 내일이면 작업한 노래가 친구의 웹사이트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의 공감에 나선다. 즐거운 일!

비가 시원한 것은 우리를 적서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딘가에 부딪혀 적당한 빗소리가 나기 때문에 더욱 시원하게 느껴진다.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소리는 나에게 많은걸 알려주곤 한다. 난 그런 소리를 만들고 담아내는 하루를 보낸다.

지난 2월말 온라인 서점들은 주문 폭주로 몸살을 앓았다. 그 이유는 27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 싼값에 책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서점의 높은 할인율이 출판계와 오프라인 서점의 위기를 몰고 왔다는 지적에 따라 해결책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출판된 지 일년 이내의 책은 반드시 정가로 판매해야하며 인터넷 서점의 경우 10%까지만 할인 판매 할 수 있다. 단, 2005년부터 참고서, 사전 등 실용도서의 일부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15개 단체로 이뤄진 '도서정가제 범출판업계 대책위원회(위원장=김태진, 이창연)'는 "마일리지 제도나 정가 할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면 출판사 쪽에서 책 정가를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해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오프라인 서점들이 대거 휴점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행을 앞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도서정가제. 하지만 시행 50여일이 지난 지금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이다. 먼저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오프라인 서점의 붐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의 할인을 격차와 마일리지, 구간 묶어 팔기 등의 편법은 오프라인 서점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서의 대부분이 발행 1년 경과도서로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실제 할인율이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바람으로 내몰린 쪽은 마일리지 적용도, 대규모 마케팅도 할 수 없는 동네서점들이다. 할인을 고려해 높게 책정되는 책값의 거품은 여전히 빠지지 않는 실정이고 책의 정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판매량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마케팅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마일리지 등의 편법을 규제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출판마케팅 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편법을 완전히 규제하지 않으면 무한할인경쟁 상태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복할만한 성장세를 거듭하던 온라인 서점들은 판매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한 동영상 소품, 직접 책을 살펴보는 느낌을 주는 '오픈 인사이드 북', 중고책 매매 서비스 제공 등이 차별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프라인 서점계 역시 불황을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점 못지 않게 여러 종류의 책을 구비하고, 구매자를 기다리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독자 서비스를 마련해 구매자를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출판시장은 책의 정가를 크게 책정하고 단기간에 과도한 할인을 하거나 거대자본의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어권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문화선진국들은 자국의 문화, 언어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 도서정가제 시행을 점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도서정가제는 비록 우리와 다른 취지로 출발했더라도 본받을만하다. 특히 책을 시장의 논리에 맞춰 일반 상품과 같이 취급하지 않는 공급자와 할인율보다 독자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구매자의 자세는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서정가제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인 2008년까지 아직 갈 길이 멀기에 그만큼 변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루 빨리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one@dongguk.edu

사진 향한 열정의 빛 흑백 필름에 쏘다

사진 동아리 '동그라미' 제14회 신인전 ... 신선한 작품 세계 돋보여



최근 찍은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카메라에 익숙해진 신세대들에게 수동 카메라는 낯선 골동품일지 모른다. 하지만 수동 카메라로 찍은 흑백 사진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는 사진 동아리 '동그라미'의 회원들에게 그것은 '보물 1호'이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갤러리 동국에서 동

그라미의 '제14회 신인전'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현재 2학년인 33기 회원들이 준회원 딱지를 떼는 신고식 격 전시회이다. 이와 관련해 동그라미 회장 박정열(전자공3) 군은 "지난 일 년 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을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큰 의미를 지니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11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총 23편의 작품을 주제별로 전시했으며 5일에는 품평회를 개최했다. 또한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 관람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흑백의 대비를 통해 표정을 살린 인물 사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봄, 엄마와 시장에/김유선(중문2)'은 엄마를 따라 재래시장에 나들이를 나온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봄 내음을 전달했고 '떠나보내기/김정연(신방2)'은 할머니의 49

재 행사를 치르는 가족들의 표정을 렌즈에 담았다. 그리고 풍경 사진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충무로 역의 모습을 찍은 'Modern Times/김다현(중문2)'가 눈에 띄었다. 이 외에도 '빙화/남지우(철학2)'는 그림의 일부를 사진으로 표현해 이색적인 느낌을 주었다. 본교 학생들 뿐 아니라 타대학 사진 동아리 회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끝난 동그라미 '제14회 신인전'. "사물을 보는 시각이 카메라 렌즈의 시각과 같아질 때까지 더욱 노력할 것"이라 말하는 한 회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이제 막 프로 사진작가를 향한 날개짓을 시작했다. 사진에 대한 이들의 열정이 정기전과 대동제로 이어져 한층 성숙된 작품들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문화단신

오픈 유어 아이즈 전

고상우, 윤미연, 박경택 등 젊은 작가들의 독창적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발견 2003-오픈 유어 아이즈(Open your eyes)'전이 오는 20일까지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감각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편견에 가려진 실재를 파악하는 인식의 '눈'으로 보는 외부세계가 과연 진실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제로 한다. 문의 760-4726

'CJS 연합' 무산

CJ엔터테인먼트(대표=이강복)가 시네마서비스가 속해 있는 플레너스 엔터테인먼트(대표=박병무)의 주식 인수를 포기한다고 4일 발표해 'CJS 연합'이 무산됐다. 연합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주식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이 합일점을 찾지 못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두 회사는 제작과 배급 등 영화 관련 분야에서 공동 보조를 계속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소 영화산업의 쇠퇴와 비상업영화의 입지 축소 등을 우려하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던 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19혁명 43주년 기념 추모식 및 제34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 안내

- 4. 19혁명 43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 19기념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모든 동국가족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행사일시 : 2003. 4. 18(금), 09:00~16:00

2. 행사장소 : 국립 4.19묘지(추모식) 및 북한산(등산대회) (집결장소 및 시간 : 국립 4.19묘지 내(內) 광장, 09:00까지)

3. 행사내용 : 4.19혁명 43주년 기념 추모식 및 제34회 동국인 등산대회

4. 행사일정 및 준수사항

Table with 3 columns: 시간, 행사내용,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5. 민주주의를 위해 신화하신 순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4.19정신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 동국인 모두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합니다. 가. 4.19기념 추모식 : 행사참가자 전원 참석 → 행사 전 4.19 기념탑 앞으로 함께 이동하여 합동 분향

나. 동국인 등산대회 : 중식 시간 및 폐회식장소 도착 시간을 엄수하고, 중식 시 지나친 과음 절대 삼가 다. 등산대회 중식 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쓰레기는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 올 것

6. 등산경로 : 4.19기념탑(개회식) → 백련사매표소 → 대동문 → 보국문 → 중성문 → 대서문 → 북한산매표소 → 한산성매표소 앞 주차장(시상식 및 폐회식)

7. 교통편 : 가. 시내버스 : 6번, 6-1번, 8번, 8-1번, 23번, 28번, 333번(4.19 국립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 10분) 27번, 127번(우회람) : 4.19 국립묘지 앞에서 하차(도보 3분) 나. 지하철 : 4호선 수유전철역(마을버스 및 학교(셔틀)버스 이용) 다. 셔틀버스 3대 운행 : 4호선 수유전철역 5번출구 → 국립 4.19묘지 입구 (운행시간 : 08:00 ~ 09:50까지)

8. 참가대상 : 교·직원, 학생, 동문, 법인 등 모든 동국가족

9. 팀구성 : 가. 4인 1조팀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나. 학과 단체팀 :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 이상 참가 다. 동아리 단체팀 : 30명 이상으로 구성, 지도교수 참가 시 가산점 라. 행정부서 단체팀 : 행정부서 단위로 구성(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교무처, 연구처, 총무처, 정보관리실, 중앙도서관 등) \* 상기의 교직원 단체팀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부서는 4인1조로 팀을 구성 (홍보실, 단과대학 교학과, 각 대학원 교학부(과), 각 부속기관 등)

10. 시상 가. 4인1조팀 : 최우수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2팀, 자연보호상 5팀 나. 학과 단체팀 : 금상 1팀(W1,000,000), 은상 2팀(각 W500,000), 동상 3팀(각 W300,000) 다. 동아리 단체팀 : 2팀 각 W300,000 라. 교직원 단체팀 : 금상 1팀(W500,000), 은상 2팀(각 W300,000)

11. 접수기간 : 2003. 4. 1(화) ~ 4. 16(수), 09:00 ~ 17:00

12. 접수처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교학과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처 학생복지실(본관 3층)

13. 유의사항 가. 단체팀의 경우, 접수기간 내 접수한 팀에 한하여 시상 나. 학과 단체팀 및 동아리 단체팀은 반드시 참가자 명단 제출 (양식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 또는 학생복지실에서 배부) 다. 학과 및 동아리 단체팀은 행사당일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 세울 깃발 2개 준비 라. 우선시에도 대회는 진행됨.(우산이나 우의는 개별 준비) 마. 도시락은 각자 준비(쓰레기 봉투도 필히 준비)

\* 이번 제34회 동국인 등산대회는 참가자 기념품을 배포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라오며, 4.19 기념행사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2260-3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처

# 매체비평

## 도서 편

### 숲의 왕

“문학에 담아낸 생태학  
친환경적 시선 인상적”



생태주의 서사문학으로 자연에의 외경을 표현한 김영욱의 '숲의 왕'.

오늘날 생태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새삼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생태환경이 위협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이다. 생태환경의 생명력을 중시하고 그에 대한 소설들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도 20세기 후반부터이다. 작가들과 인문학자들은 환경생태계 파괴의 근본 원인을 인간의 정신적 타락과 그 황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바람의 생태학'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소설이 새로운 시대에 각광을 받을만한 강한 주제를 내포하는 김영욱의 '숲의 왕'이라 하겠다. 김영욱의 생태주의 소설은 이전의 소설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친환경적이며 더불어 신뢰성을 강렬히 드러내어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 속에서 자연을 숭배의 대상이며, 신비한 힘을 내포한

거대한 존재로 인식하여 자연에 대한 경배처럼 외경의 시선으로 소설을 전개하고 있다.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사회가 아니라 죽어 있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며, 결국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예언자와 같은 생태학의 서사이다.

좀 더 자극적이고 열거적이며, 지역적인 개인주의를 지향할 때 그의 소설은 환경에 대한 지극한 열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는 우리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친환경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지나칠 만큼 자연에 대한 고대의식과도 같은 중세적인 신비주의는 사람들의 의식을 뒤집어보고자 하는 사상의 전환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의 소설을 읽어가면서 그의 생태학적인 세계관

에 강하게 동조하게 된다. 그의 서사는 이러한 생태학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며, 신비하면서도 아름다운 시선으로 자연을 다시 보게 한다.

'숲의 왕'에서 '에피쿠로스의 정원'은 친환경론자가 만든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공간이다. 거기에는 각종 나무와 새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허파와 같은 구실을 하는 산소를 뿜어내는 곳이다. 한편 그의 인물들은 일면 천편일률적이다. 인물들의 색채가 모두 박학다식하고 자연에 대하여 외경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의 왕'은 서정적이며 황홀하도록 아름다운 묘사로 이 소설이 갖는 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즉, 선명한 주제의식과 더불어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영욱의 소설에서 생태학적으로 아쉬

운 것이 있다면, 늦봄으로부터 시작하여 늦여름까지의 생태적 환경이 왕성한 시기만을 골라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환경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겨울의 공간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낙엽이 되는 가을의 공간이 그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녹음이 짙은 계절만이 숲의 왕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아니다. 잠을 자는 것도 충전을 위하여 얼음과 눈의 외피 속에서 생명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느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봄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력이 또다시 대지 속에서 끓어올라 고통지면서 소생하는 것을 그는 덧붙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물을 살아 있는 코스모스에 연결할 수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김영욱

중앙대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과정

# 잠든 박물관, 문화와 함께 깨어나라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점차 글로벌화 하는 21세기 후기산업사회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의 역사, 문화와 한민족의 지혜를 구현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2002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에서 세계인을 경악케 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하였던 4강의 성적이 아니라 오히려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한 열정적인 거리응원 문화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이 중요한 화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발전만이 아닌 우리문화의 정체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사상누각'이 아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

문화유산은 장구한 세월을 전해온 것으로 일부는 이미 풍화가 진행되어 있으며 또한 환경오염 등으로 앞으로 풍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재는 한번 원형을 잃어 버리게 되면 다시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없는 '비가역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원형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이 선결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예산은 매년 3천 3백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이 정도로는 지방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15% 내외의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우 비정규직 인력이 전체 인원의 절반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하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손질이 제대로 미치지 못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전문인력, 예산 등의 부족현상은 원형보존을 위한 일차적인 관리업무의 부실은 물론 다른 과제인 '활용'문제에 거의 손질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가 단순한 과거의 중요한 유산으로 보존만 하여서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즉 과거의 문화유산이 오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때에 보존의 의미가 더욱 빛날 것이다.

예를 들면 해인사 장경판공에서 자연적인 기류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물 전후면의 벽체의 상·하 환호의 크기를 달리하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현대건축의 설비 등에서도 그 개념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요구는 '문화향수권'과 관련하여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과거 우리의 문화유산 활용은 불국사, 석굴암과 같은 전통건축의 물리적 형태를 단순히 보여주는 일차적인 개념의 관광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템플스테이'는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인들에게도 새로운 체험관광의 형태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건물이란 '하드웨어'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선불교의 전통이란 '소프트웨어'가 결합

되었을 때 그 효과는 배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 문화유산 유출 경위

최근 약탈문화재 반환운동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 등 20여개국에 7만 5천여점의 우리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문화유산이 외국에 유출된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 오구라는 경주일원에서 신라고분의 도굴을 직간접으로 부추겨 귀중한 부장품들을 일본으로 빼돌렸으며 현재 동경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둘째는 외교관들에 의한 수집으로 구한말 프랑스 공사인 폴랭 드 플랑시는 재임기간 중 고려자기 등의 한국유물을 수집하였으며 이들 유물은 현재는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셋째는 문화재들이 불법으로 밀반출된 경우로 조계종 조사에 의하면 1984년부터 1999년 6월까지 316점에 달하는 불교문화재가 도난되었다고 한다. 이중 강원도 신홍사에서 10여년 전 도난당하였던 불화가 미국의 LACA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외국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들은 가능한 한 본래의 장소로 반환되어야 한다. 프랑스가 탈취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출 문화재들은 그 유출 경로가 불투명하고 또한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불법문화재 반환을 위한 유네스코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유출문화재의 반환교섭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 일본인 이우지는 평생을 모은 한국과당 1,082점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증하였거나 재일동포 김용두 씨가 일본에서 사들인 평생을 모은 한국유물들을 기증한 사례 등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들이다.

## 약탈문화재 반환돼야

향후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반환하는 운동은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반환이 어려운 경우 현지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대안인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교류재단 등이 외국 유명박물관의 한국실 설치나 증·개축사업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문화재 914점을 공동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록으로 발간하여 우리문화의 현지선양에 힘쓰고 있는 일등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테마가 있는 매체 박물관

### 사이버우정박물관

(www.postmuseum.go.kr)

우표, 엽서 등 체신업무와 관련된 사료의 각종 사진자료, 실물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사이버 박물관이다.

분야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전시했으며 방문객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다. 또한 세 개의 전시실은 실제 박물관 못지 않게 입체적이며 우정의 변천사 등 전시물과 관련된 다량의 문서는 오프라인 박물관의 단점을 극복했다. 특히 오래된 기념우표의 이미지와 발행 의미를 두루 살펴볼 수 있어 우표 수집가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 한국생활사 박물관 시리즈

선사시대, 고조선시대를 거쳐 발해·가야, 고려시대까지 우리 역사의 흐름을 종이에 담은 '한국생활사 박물관'은 그야말로 '책 박물관'이다.

시대별로 역사와 서민들의 생활방식, 문화의 특색 등을 사진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을 곁들여 실감나도록 했다. 목차를 야외전시, 주전시실, 특별전시실, 가상체험실, 특강실, 국제실로 나눠 독자에게 박물관을 관람하는 느낌을 전달하지만 전시품들은 엄숙한 전시 유리를 캔서민 위주의 볼품들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역사와 문화를 진짜 박물관보다 더 진솔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한국생활사 박물관을 펼치면, 정보와 재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문화부 culture@dongguk.edu

# 도심 속 체험박물관이 열린다

## ‘한국문화의 집’ 개관 ... 전통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 전통 복합문화공간이 도심 한복판에 생겨, 서양식 놀이문화에 길들여진 한국인은 물론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한국 전통문화의 초대'로 이끌 준비를 마쳤다.

지난 4월 1일 삼성동에 개관한 '한국문화의 집 KOUS(Korea Cultural House)'가 바로 그곳. 전통예술 공연장과 전통문화 체험실 그리고 전통 한식당과 찻집,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상품 전시·판매장까지 갖춘 이곳은 이름 그대로 한국 문화를 담은 '집'이라 할 만하다.

전통 놀이마당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진 공연장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쉬는 날이 없다. 평일에는 산조, 사물놀이, 판소리, 부채춤, 승무 등 기악과 성악, 고전무용까지 망라한 전통예술공연이 펼쳐진다. 여기에는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이 직접 출연하기도 해 볼거리는 물론 공연의 가치를 더한다.

또한 금·토요일에는 아기장수 설화에 천마(天馬) 설화를 엮어 구성한 가족마당극,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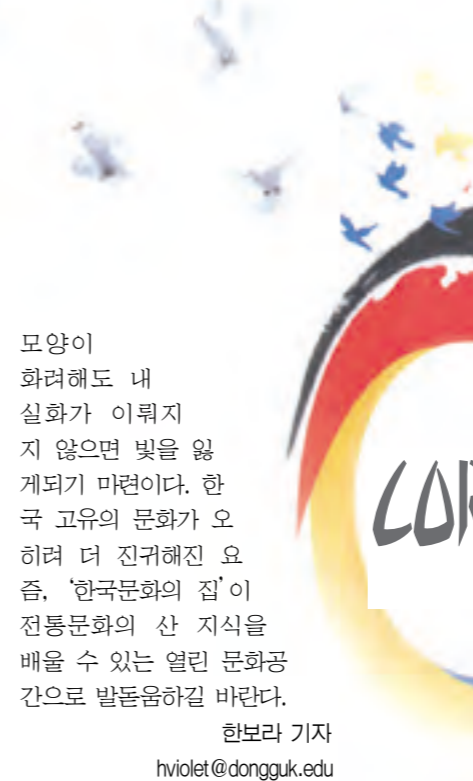
와 전마'가 오는 6월 28일까지 열려 주말에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기에 충분하다.

특히 한지공예와 토우 만들기, 탈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직접 전통문화 배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관람하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험 프로그램이 아직 자리잡지 못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거나 문화상품 전시가 전시관이라 하기엔 소량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 홍보가 미흡해 아직까지 방문객 수가 많지 않은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의 집 문화사업팀 정재은 씨는 "홍보는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도 더 주위를 기울여 앞으로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전통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문화공간이라도 이를 찾아주는 이가 없으면 빛을 발하기 어렵고, 아무리 걸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 메아리

### 후회하겠죠

▲“그대도 힘들었나요. 서로가 언제 가야할지를 몰랐었죠...” 가수, 댄서로 이제 영화배우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있는 장나라. 그의 히트곡 중 하나인 '아마도 사랑이었죠'라는 노래는 옛사랑의 추억을 담고 있다. 서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결국은 떠나는 사랑을 잡지 못한 채 헤어지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교육분야 양허

안을 WTO에 제출했다. 그동안 교육개방에 반대해온 각 시민단체들의 우려와 개방을 촉구했던 경제부처의 주장 사이에서 결국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따라서 WTO 회원국간 협상인 진행된 후 양허안대로 개방이 결정되면 외국의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은 우리나라에 의과 대학, 사범대학 등을 제외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애초 교육 개방에 대해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고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방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자'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국내법상 허용된 범위조차 양허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비난을 살 수 있다는 경제부처의 논리에 설득됐다. 이와 관련해 윤덕홍 교육부차리는 "회원국간 협상에 교육부가 참가해 국내법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국내 교육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교육부가 협상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개방의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교육개방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상품으로 해석하는 데에 일차적 문제가 있다. 또한 '양허안을 제출하고 국내법의 틀 안에서 최대한 버틴다'는 교육부의 안일한 생각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마도 사랑이었죠'의 주인공은 '내가 나뉘어요. 가지 말라던 그 용기 없던 말을 모른척했죠'라며 옛일을 후회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후회일 뿐이다.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교육개방 반대. 훗날 교육부와 정부가 "하지 말라던 사람들의 말"을 떠올리는 것은 아닐까. 김진성 기획·사진부장 yearn@dongguk.edu